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능력 및 행동문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비교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from Low-income and Middle-income Families

김병옥 · 이진숙*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인간생활과학연구소

Kim, Byeng Og · Lee, Jin Suk

Dept. of Child Develop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behavior problems with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nd middle-income families. Subjects were 171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nd 228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4th -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ings: (1) The level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i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as lower and ac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were less than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In the behavior problem,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higher than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2) The stress coping strategies(active/social support) i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related with internal behavior problem(anxiety/withdrawal). And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was related to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 (3) Regression analysis model showed that emotion-regulation abil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ith aggressive coping strategy showed hyperactive behavior problem. So, the education/therapy programs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have to be developed and practiced in schools, local children centers and so on.

Key Words :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 regulation ability, behavior problem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현상에 의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가정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빈곤 아동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자료(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1999년 10.6%, 2001년 9.6%, 2002년에 9.8%로 나타나며, 그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부모나 양육자의 빈곤으로 인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혼·가출·질병·사망 등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방임으

로 인해 정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행동문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주, 2004; 이진숙·한지현, 2006; 정지연, 2005; 조희숙, 2005; 황미섭, 2000). 저소득층 이혼가정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과잉, 공격, 위축, 미성숙행동 문제를 많이 나타냈으며(정지연, 2005), 또한 부정적이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우울해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옥, 1997).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해체와 부모 가출,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

* Corresponding author: Jin Suk Lee
Tel: 063) 270-3836, Fax: 063) 270-3839
E-mail: jslee0820@chonbuk.ac.kr

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이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한미현, 1996), 우울, 불안,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포함된다(Achenbach, 1991).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개인적 기질 요인 외에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등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기나 청소년기와 비교해 볼 때 아동기는 비교적 안정된 발달이 진행되는 평온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기나 유아기의 행동문제에 비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한미현·유안진, 1995). 그러나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또래와의 교류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대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은 부적절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적응·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 결과,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환경에 따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 부모님의 다툼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교에서는 또래 괴롭힘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미섭, 2000), 가정환경·학업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적응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성인, 1998). 최근의 연구경향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 자체의 영향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중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어떠한가에 환경에 대한 아동의 적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아동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인지·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며 아동의 정서·사회적 발달수준을 반영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민하영·유안진, 1998)을 보면, 남아는 회피적 대처와 적극적 문제해결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여아는 내적감정발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내적감정발산이나 회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미, 1996). 이러한 결과들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

절한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비교연구(최미경, 2006)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정환경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최근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유진, 2004). 정서조절 능력이란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Thompson, 1994, 박서정, 2004 재인용),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남아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성연·강지흔, 2005).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은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와 관련되며, 여아는 불안 및 미성숙행동과 같은 내면적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아동에 비해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정서조절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저소득층 아동은 또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결여, 나아가 또래관계나 행동문제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김영교, 1995; 박진아, 2001; 양현아, 2003; 이진숙·한지현, 2006; 정연우, 2001; 한미현, 1996; 현온강·이현정, 1999)와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박성연·강지흔, 2005; 박혜경, 2002; 한유진, 2004)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정서조절 양식이 부적응적/공격적 행동을 유지시키고 행동문제를 발생시키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중 일부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 정서조절과 행동문제 간에 일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변인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 자존감, 학업성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어주경, 1998; 원희정, 2006; 정지연, 2005, 조희숙, 2005)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행동문제에 관련된 선행요인들을 규명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아동 대상 연

구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관련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더구나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집단에 있어서 변수들 간의 관련 양상을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가?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J시와 Y시에 거주하고 있는 4-6학년 저소득층 아동 171명과 일반아동 228명이다. 고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아동이 또래 관계 및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며(김송이, 2001; 박성연·강지훈, 2005) 사춘기 초기의 행동문제 및 아동발달에 중요한 시기(문미영, 2001)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1), 성별은 남아가 42.7%, 여아가 57.3%이며 학년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업은 단순노동 및 판매직 종사자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였다¹⁾. 가족형태 역시 한부모(44%), 조손가정/친인척양육(12%)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부모님의 교육 및 직업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형태 역시 양친부모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2.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대처전략

민하영(1999)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척도를 수정한 박서정(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영역(적극적/소극적/공격적/회피적/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에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적극적 대처전략 .78,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 .63, 공격적 대처전략 .71, 소극적 대처전략 .75, 회피적 대처전략 .61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 (1995)에 의해 개발되어 박혜경(2002)이 번안하여 수정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사용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로서 아동의 평소 행동에 근거하여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지역아동센터, 학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 2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정서조절(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적응적 정서조절(상황에 적합한 정서표현을 하며 공감, 정서 지각이 뛰어남)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응답점수를 역산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토대로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재구성한 아동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아동의 담당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과잉/불안/미성숙/공격/위축 등 5개영역(각 8문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행동문제인 불안, 위축과 외현화 행동문제인 과잉, 공격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각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의 아동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개념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가정의 아동이다(원희정, 2006).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통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저소득층아동		일반아동	
		N	%	N	%
성별	남	73	42.7	106	46.5
	여	98	57.3	122	53.5
학년	4학년	55	33.7	82	36.1
	5학년	63	38.7	74	32.6
	6학년	45	27.6	71	31.3
부의 연령	30~34	2	1.9	4	1.8
	35~39	25	23.4	48	21.1
	40~44	45	42.1	117	51.5
	45~49	23	21.5	54	23.8
	50이상	12	11.2	4	1.8
모의 연령	34세 이하	14	11.0	25	10.5
	35~39	57	44.9	102	44.7
	40~44	40	31.5	90	39.5
	45~49	13	10.2	11	4.8
	50이상	3	2.4	1	0.4
부의 교육수준	대졸이상	4	3.7	20	8.9
	대졸	15	13.9	91	40.4
	고졸	57	52.8	107	47.6
	중졸이하	32	29.6	7	3.1
모의 교육수준	대졸이상	1	0.6	6	2.6
	대졸	15	8.8	65	28.6
	고졸	83	48.5	149	65.6
	중졸이하	27	15.8	7	3.1
부의 직업	사무관리직	13	12.0	116	51.3
	판매 서비스	17	15.7	61	27.0
	단순노동/생산직	64	59.3	46	20.4
	무직	11	10.2	2	0.9
	기타	3	2.8	1	0.4
모의직업	사무관리직	12	9.4	40	17.5
	판매 서비스	11	8.6	51	22.4
	단순 노동생산직	57	44.5	22	9.6
	전업주부	42	32.8	115	50.4
	기타	6	4.7		
가족형태	부모	75	43.9	225	98.7
	한부모	76	44.4	2	0.9
	조부모/친척	20	11.7	4	0.4

* 무응답 수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과잉 .88, 불안 .83, 위축 .84, 공격행동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07년 8월 16일~17일 J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2곳에 다니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14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거나 측정의도와 맞지 않는 문항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하

였다. 본조사는 2007년 8월 22~10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표집은 J시내 지역아동센터(21곳),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1곳)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아동은 중산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2곳)에서 4-6학년 각 1반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배포 이전에 응답가능 부수를 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교사용/아동용 질문지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배부하여 일주일 후 조사자가 회수하였다. 전체 442부를 배부하여 428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6.8%이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적합하

지 않은 질문지 29부를 제외한 399부(저소득층 아동 171부, 일반아동 22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t-검증, 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 차이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적극적($t=-4.78, p<.001$), 소극적($t=-3.57, p<.001$), 회피적 대처전략($t=-2.08, p<.05$) 모두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t=-9.79, p<.001$), 과잉, 불안, 위축, 공격 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6.06, t=8.94, t=7.80, t=5.95, p<.001$)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3.09, p<.01$), 일반아동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t=-2.49, p<.05$). 행동문제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 ($t=3.67, p<.001$), 과잉행동($t=2.19, p<.0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일반아동 역시 공격($t=4.55, p<.001$)과 과잉행동($t=3.12, p<.0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저소득층아동의 경우, 공격적 대처전략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1.99, p<.001$), 사후검증결과 4, 5학년 아동보다 6학년 아동이 공격적 대처전략이 높았다. 행동문제는 불안 영역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여($F=9.20, p<.01$) 4학년 아동이 5, 6학년 아동보다 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서조절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아동의 경우,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에서 차이가 나타나($F=9.11, p<.01$), 6학년보다는 4, 5학년 아동이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64.02, p<.001$). 4, 5학년보다 6학년이 정서조절 능력이 높았다. 행동문제의 경우, 과잉($F=20.14, p<.001$), 불안($F=4.24, p<.05$)에서 학년간 차이를 보여 4학년이 5, 6학년 아동보다 과잉행동이 높고, 4학년이 6학년보다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구분	저소득층 아동 (N=171)		t-test	
	M(SD)	M(SD)		
스트레스 대처전략	적극적	1.84(.68)	2.15(.75)	-4.78***
	사회지지추구	1.59(.53)	1.69(.50)	-1.21
	공격적	1.38(.51)	1.44(.46)	-.03
	소극적	1.65(.65)	1.84(.70)	-2.08*
	회피적	2.14(.70)	2.40(.69)	-3.57**
행동문제	정서조절 능력	3.3 (.64)	3.8 (.51)	-9.79***
	과잉	.58(.53)	.33(.42)	6.06***
	불안	.57(.44)	.26(.32)	8.94***
	위축	.40(.40)	.16(.29)	7.80***
	공격	.31(.45)	.11(.26)	5.95***

* $p<.05$ *** $p<.001$

<표 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구분	요인	남아	여아	t-test
		M(SD)	M(SD)	
저소득층 아동	적극적	1.74(.65)	1.94(.68)	-1.92
	사회지지추구	1.60(.52)	1.66(.54)	-.68
	공격적	1.48(.55)	1.40(.49)	.97
	소극적	1.65(.63)	1.75(.66)	-1.02
	회피적	2.16(.75)	2.19(.67)	-.31
	정서조절 능력	3.24(.63)	3.46(.64)	-3.09**
	과잉	.69(.56)	.51(.49)	2.19*
	불안	.52(.42)	.60(.46)	-1.18
	위축	.39(.44)	.41(.37)	-.25
	공격	.46(.53)	.21(.35)	3.67***
일반아동	적극적	2.07(.71)	2.21(.78)	-1.38
	사회지지추구	1.70(.51)	1.69(.50)	.01
	공격적	1.49(.47)	1.40(.45)	1.46
	소극적	1.75(.68)	1.90(.71)	-1.59
	회피적	2.42(.65)	2.37(.72)	.54
	정서조절 능력	3.78(.54)	3.96(.47)	-2.49*
	과잉	.42(.49)	.25(.33)	3.12**
	불안	.23(.31)	.29(.33)	-1.31
	위축	.16(.30)	.16(.28)	.04
	공격	.20(.34)	.04(.14)	4.55***

*p<.05 **p<.01 ***p<.001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구분	요인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F
		M(SD)	D	M(SD)	D	M(SD)	D		
저 소 득 총 아 동	적극적	1.75(.62)		1.94(.75)		1.89(.66)		1.86(.68)	2.34
	사회지지	1.65(.62)		1.67(.52)		1.59(.47)		1.64(.54)	.52
	공격적	1.36(.41)	a	1.38(.43)	a	1.62(.70)	b	1.44(.52)	11.99***
	소극적	1.71(.67)		1.62(.59)		1.81(.71)		1.70(.65)	.87
	회피적	2.20(.78)		2.15(.75)		2.15(.50)		2.17(.70)	.32
	정서조절	3.34(.51)		3.44(.76)		3.35(.65)		3.38(.65)	.03
	과잉	.58(.50)		.56(.53)		.62(.58)		.58(.53)	.18
	불안	.70(.51)	a	.48(.40)	b	.53(.37)	b	.57(.44)	9.20**
	위축	.46(.44)		.38(.40)		.38(.36)		.40(.40)	2.25
	공격	.34(.46)		.32(.46)		.29(.46)		.32(.46)	.71
일 반 아 동	적극적	2.25(.77)		2.13(.75)		2.05(.74)		2.15(.75)	2.67
	사회지지	1.71(.57)	a	1.70(.54)	a	1.57(.44)	b	1.66(.52)	9.11**
	공격적	1.40(.43)		1.46(.44)		1.46(.61)		1.44(.46)	.75
	소극적	1.78(.67)		1.70(.67)		1.80(.68)		1.76(.67)	.48
	회피적	2.44(.65)		2.35(.67)		2.39(.75)		2.39(.69)	.20
	정서조절	3.49(.50)	a	3.53(.67)	a	3.76(.73)	b	3.58(.64)	64.20***
	과잉	.50(.51)	a	.25(.30)	b	.21(.33)	b	.33(.42)	20.14***
	불안	.30(.39)	a	.28(.32)	ab	.19(.23)	b	.26(.32)	4.24*
	위축	.16(.29)		.15(.25)		.16(.32)		.16(.29)	.01
	공격	.15(.34)		.12(.21)		.07(.20)		.12(.26)	3.48

*p<.05 **p<.01 ***p<.001, D : Duncan test

3.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 관계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전략과 불안/위축($r=-.19$, $r=-.17$),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과 불안/위축($r=-.20$, $r=-.19$)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회피적 대처전략과 불안($r=-.12$)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적극적/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록 불안/위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과 과잉행동($r=.23$), 공격적 대처전략과 공격행동($r=.17$)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과잉행동이 높고 공격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공격행동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적극적/소극적/회피적 대처전략은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6),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정

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과 과잉/공격 행동($r=-.65$, $-.70$)간에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은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하위영역간에 중간 정도의 상관($r=-.21$ ~ $.49$)을 보였다.

4.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성별, 학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및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차한계와 VIF계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1보다 크고, VIF 계수는 1~2사이의 범위 내에 있어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정서조절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 대처전략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중회기분석 결

<표 5>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의 관계

구분	하위요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적극적	사회지지추구	공격적	소극적	회피적
저소득층아동의 행동문제	과잉	-.02	.03	.00	.06	.04
	불안	-.19**	-.20***	-.09	-.10	-.12*
	위축	-.17**	-.19**	-.02	-.10	-.04
	공격	-.06	.03	.08	.02	.08
일반아동의 행동문제	과잉	.11	.23***	.09	.10	-.05
	불안	.02	-.02	-.01	-.00	-.06
	위축	-.01	.01	-.00	.00	-.05
	공격	-.01	.11	.17**	.02	-.08

* $p<.05$ ** $p<.01$ *** $p<.001$

<표 6>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구분	하위요인	정서조절 능력	
		저소득층 아동	일반아동
행동문제	과잉	-.65***	-.37***
	불안	-.27***	-.21**
	위축	-.19***	-.30***
	공격	-.70***	-.49***

* $p<.05$ ** $p<.01$ *** $p<.001$

<표 7>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B	β	B	β	B	β	B	β
저 소 득 층 아 동	성별	.12	.11	-.18	-.20*	-.09	-.11	.14	.16*
	학년	.04	.05	-.10	-.17*	-.05	-.11	-.02	-.03
	적극적	.03	.04	-.02	-.04	-.03	-.05	.02	.03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지지	.02	.02	-.14	-.19	-.18	-.25*	.02
	공격적	-.13	-.11	-.04	-.05	.02	.02	-.03	-.03
	소극적	.01	.03	-.00	-.00	-.05	-.08	-.08	-.12
	회피적	-.01	-.04	-.02	-.03	.04	.07	.03	.05
	정서조절 능력	-.56	-.68***	-.24	-.35***	-.14	-.26**	-.49	-.69***
	R ²	53.5		22.3		11.5		58.2	
	Adjusted R ²	52.1		19.9		8.8		56.9	
일 반 아 동	F	18.00***		4.87***		2.03*		20.38***	
	성별	.14	.17**	-.08	-.13	-.04	-.07	.08	.15*
	학년	-.08	-.16*	-.01	-.04	.08	.23**	.03	.10
	적극적	-.01	-.02	.03	.07	.01	.04	-.00	-.01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지지	.14	.18*	-.02	-.03	-.00	-.00	.04
	공격적	.02	.02	.00	.01	-.04	-.06	.10	.19*
	소극적	.06	.11	-.02	-.05	.00	.01	-.02	-.06
	회피적	-.08	-.14*	-.02	-.05	-.02	-.05	-.03	-.09
	정서조절 능력	-.17	-.22**	-.13	-.21**	-.25	-.44***	-.22	-.45***
	R ²	23.2		.07		14.9		30.1	
	Adjusted R ²	20.1		.03		11.5		27.3	
	F	7.45***		1.77		4.31***		1.60***	

* $p<.05$ ** $p<.01$ *** $p<.001$, 성별은 가변수 처리함 (남=1, 여=0)

과를 살펴보면, 과잉행동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R^2)은 54%였다. 불안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beta=-.35$, $p<.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성별($\beta=-.20$, $p<.05$)과 학년($\beta=-.17$, $p<.05$)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여아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축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beta=-.26$, $p<.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사회지지구적 대처전략($\beta=-.25$, $p<.05$)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사회지지구적 대처전략이 낮을수록 위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beta=-.69$, $p<.001$)과 성별($\beta=-.16$, $p<.01$)로 변수전체의 설명력(R^2)은 58%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남아의 공격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과잉행동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beta=-.22$, $p<.01$)과 성별($\beta=.17$, $p<.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지지구적 대처전략($\beta=.18$, $p<.05$)과 학년($\beta=-.16$, $p<.05$), 회피적 대처전략($\beta=-.16$, $p<.05$)이 아동의 과잉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전체 설명력은 23%였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학년이 낮은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지지구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과잉행동 수준이 높고,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과잉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축행동의 경우에는 정서조절 능력($\beta=-.44$, $p<.001$), 학년($\beta=.23$, $p<.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변수전체 설명력은 15%였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낮으며 학년이 높은 아동일수록 위축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격행동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beta=-.45$, $p<.001$), 공격적 대처전략($\beta=.19$, $p<.05$)과 성별($\beta=.15$, $p<.05$)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수전체의 설명력은 30%였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남아의 경우 공격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의 불안은 F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VI.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변수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의 차이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적극적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으며, 불안·위축·파ing·공격 등 모든 영역에서 행동문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분노·슬픔·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이 낮고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표현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내면화(불안, 위축) 및 외현화(파ing, 공격) 행동문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행동문제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민주, 2004; 정지연, 2005; 조희숙, 2005; 황미섭, 2000) 및 낮은 사회계층에서 비행과 공격수준이 높다는 연구(이경혜, 2004; Graham et al., 1992) 등과 유사한 연구결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가정해체와 부모 가출, 경제적 어려움 등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만성화되면서 아동의 부적응이나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성별에 따른 차이 : 저소득층과 일반아동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파ing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한유진, 2004)와 일치한다. 여아는 자신의 정서를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어른이 말을 걸면 공손하게 반응하고 홍분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통제하며, 자신의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정서와 조화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Saloverry & Mayer, 1990, 이병래 1997 재인용).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고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문제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파ing·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파ing·공격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고, 여아는 불안·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민정·도현심, 2001; 정문자·김문정, 2004; 한미현, 1996; 한유진,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남아와 여아가 보이는 행동문제의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 학년에 따른 차이 :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학년에 따라 공격적 대처전략,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 정서조절, 파ing 및 불안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은 공격적 대처전략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 6학년 아동이 4, 5학년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게 대들면서 따지거나, 복수를 하거나, 앙갚음을 하는 등, 공격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아동은 4,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 보다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학년 아동일수록 지식이나 정보습득은 많이 이루어지므로(이은선, 2002) 보다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쌓인 분노·좌절을 건설적인 방법보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소망·회피보다는 보복하거나 앙갚음을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양현아, 2003)으로 해석된다. 정서조절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은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일반아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진(2004)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는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사회적 동기로 나타나며, 아동의 내면의 사고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서적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모두 4학년 아동이 5, 6학년 아동 보다 불안이 높게 나타났는데, 불안정한 환경에서 어린 연령의 자녀일수록 부모의 들틈과 심리적인 지지가 더욱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들은 이러한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원희정, 2006)을 고려할 때, 일반가정에 비해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 특히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호적 돌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정서조절, 행동문제의 관계

-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행동문제 관계 : 선행 연구들(양현아, 2003; 정현우, 2001; 현온강·이현정, 1999)에 의하면, 아동의 적극적·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은 행동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적극적·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불안·위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저소득 아동의 경우 회피전략과 불안간의 부적상관이, 일반아동의 경우 사회지지 추구와 과잉행동 간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서, 본 연구대상의 표집이 계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를 수정된 척도로 사용한 것 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청되며 추후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도움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불안과 위축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적극적이고 지지추구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불안과 위축이 낮음을 볼 때,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둠으로서 행동문제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관계 :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행동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박혜경, 2002; 한유진, 2004)와 일치한다. 앞서 제시했듯이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모가 사용하는 전략들을 배우므로 정서조절 능력 역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아동에 비해 취약한 양육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서조절의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시하기 어려

우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한편,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지지적인 경향을 보이면 아동은 그러한 상황에서 덜 자극적이 되며 더 동기적이고 부모의 메시지와 지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며, 부모의 긍정적 표현을 모방하고 정서와 행동을 관리하거나 부모의 목표와 기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능한 능력을 갖게 되므로 (Mischel, 1981) 저소득층 부모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학년,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정서조절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 대처전략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면,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과잉행동이 높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아의 경우 공격행동 수준이 높았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여아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사회지지추구전략이 낮을수록 위축 수준이 높았다. 특히 내면화 행동문제에 비해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변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조절의 문제가 과잉·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외현화 행동문제 감소를 위해서는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개입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아동 역시 정서조절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였으며 하위요인별 영향력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학년이 낮은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과잉행동이 높고,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과잉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공격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남아의 경우 공격행동 수준이 높았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위축수준이 높았다. 종합하면, 정서조절 능력은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일부요인이 유의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영향은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의 과잉·불안·공격행동 등 행동문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박성연·강지흔, 2005),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일수록 또래간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임연진, 2002; Eisenberg & Fabes, 1992).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조절 능력의 결여로 인한 과잉·불안·공격행동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취약한 원인 중 일부분은 아동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성영혜, 1993; 어주경, 1998; 조희숙, 2005). 본 연구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가족형태는 양친부모 가정(43.9%), 한부모 가정(44.4%), 조부모/친척 가정(11.7%)으로 구조적 결손가족이 많고,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소득층 아동은 가장 많은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가정환경으로부터 매우 적은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양육결핍은 아동에게 절망과 우울감을 주고 또래집단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Crick & Grotpeter 1995, 박혜경, 2002 재인용).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은 이러한 아동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단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물질적 지원과 아울러 정서·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적극적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낮으며 행동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적극적/사회지지추구와 같은 긍정적 대처전략은 불안·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정서조절 능력은 모든 행동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의 제한된 대처전략과 낮은 정서조절 능력은 행동문제 유발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행동문제로 인하여 교사나 부모로부터 꾸지람이나 체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영향은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에도 영향을 주어 또 다른 행동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는 저소득층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정서조절 방법을 아동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활용,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둔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며 저소득/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결과 저소득층/일반아동의 대처전략I 및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일부 나타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후 확인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질문지를 교사가 평가하도록 한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아동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교사와 부모가 평가한 자료를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등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차후에는 저학년, 청소년기 아동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저학년/고학년, 학령기/청소년기 아동간의 비교 연구를 한다면 아동기 행동문제의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정서조절,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양상을 보다 명료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저소득층아동,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서조절 능력, 행동문제

참 고 문 헌

- 김민정 ·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 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교(1995). 부모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9(2), 77-96.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주(2004). 결손가정여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 강지흔(2005). 남·여 아동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1), 1-14.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아동발달과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221-237.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우율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아동학회지*, 18(1), 39-52.
- 양현아(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희정(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1997). 정서지능 개념의 성립. *열린유아교육학회*, 2(2), 195-214.
- 이경혜(2004). 부모빈곤과 아동이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5(5), 1-9.
- 이은선(2002). 아동의 인성과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 한지현(2006).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51-959.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정문자 ·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지연(2005).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2005).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06).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2), 5-21.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200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한국아동학회지*, 26(4), 85-100.
- 현온강 ·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8.
- 황미섭(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 14). Newbury Park, CA : Sage.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Mischel, W. (1981). *Metacognition and the rules od delay*. In J. H. Flavell & L. 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240-2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elds, A.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Thompson, R.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2008. 4. 30 접수; 2008. 10. 22 채택)